"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716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음력 9월 24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작부터 '흔들'

위반 사례 고발 진정서 54건… 도, 무더기 청문 절차
쿠폰 제공 우회 할인도… 제재업체 더 늘어날 가능성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이 시기별로 최대 90%까지 벌어져 '바가지'로 오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요금 할인폭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지난 9월부터 시행했지만 한 달 만에 시장 질서가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가 할인율 상한선을 어기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정황을 무더기로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날까지 렌터카 할인율 상한선 위반 의심 사례를 고발한 진정서 54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도내 렌터카 업체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A·B온라인 플랫폼에서 도내 렌터카가 정상가(신고가)보다 61~70% 이상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내용의 진정서는 경찰에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16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해 이날부터 렌터카업계를 대상으로 행정에 신고한 1일 대여요금보다 60% 이상 할인된 금액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할인 폭을 제한하고 있다. 또 1일 대여 요금은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요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요금 할인율 상한제 위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특정 업체가 A·B온라인 플랫폼에 자사 렌터카 상품을 등록할 때 애초부터 상한선보다 더 높은 폭으로 할인해 요금을 매기는 유형과 이른바 '우회 할인'을 통해 상한제를 일탈하는 방식이다.

이중 우회 할인 문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다. 가령 1일 대여요금이 5만원으로 신고된 렌터카가 A·B플랫폼에서 60% 할인된 가격인 2만원에 올라와 있다면 표면상으로는 상한제 위반이 아니지만, 소비자는 이 상품을 예약하는 순간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제공 받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가 대비 70% 할인된 가격에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진정서 분석과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상한제 위반 의심 업체 18곳을 확인해 소명을 요구하는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청문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진정서 1건 당 수십 개의 위반 의심 사례가 포함돼 있는 등 앞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2곳에 달한다. 도내 업계의 80% 가량이 속해있는 제주도 렌터카대여조합은 영업 과정에서 할인율 상한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대여조합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시정된 상태"라며 "플랫폼을 통한 우회 할인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A·B플랫폼이 제공한 할인쿠폰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치한 곳은 결과적으로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만약 렌터카 업체가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는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해 위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그 문제는 서로 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알 림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33탄
JDC 톡톡 튀는 교육특강



한라일보사는 제주도내 **학생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 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이자 143만 구독자를 보유한 '닥터프렌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씨를 초청해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제 목	강사명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	이 낙 준 의사, 작가, 유튜버

▶ 일 시 : 11월 5일(목) 오후 3시 50분
▶ 장 소 : 오현고등학교 청음홀
▶ 대 상 : 오현고등학교 1,2학년
▶ 주 최 : 한라일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라일보 · JDC

세계 석학들 제주로… 국제학술 대회 유치

내년 7월 제주서 국제전산·실험공학 학술대회

세계적인 공학분야 석학들이 제주를 찾는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국제전산·실험공학 학술대회(ICCES 2027)'를 제주로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2014년 창원 대회 이후 13년 만으로, 전 세계 30개국 연구자 22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내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도는 지난달 26일 국제조직위원회로부터 제주 개최 확정을 통보 받았다.

해외 1500명과 국내 700명 등 2200여명이 참가해 전산·실험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학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산·실험공학은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분석과 실험으로 공학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다. 198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5월부터 한국조직위원회와 함께 국제회의·숙박시설 등 제주의 마이스(MICE) 기반시설이 지닌 강점을 담은 유치 제안서를 준비했다. 지난 8월 8일 홍콩 대회에서는 한국조직위원회 유치위원인 차석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제주 개최 제안 발표를 했고, 국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전체 참가자의 약 68%가 해외에서 방문할 예정인 만큼, 대회 개최가 숙박, 외식, 쇼핑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및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참가자들이 학술행사 전후로 제주에 머물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한국-중국 미래발전 교류주간 4일 개막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5일까지 한라컨벤션센터 등에서 '2026 한중 미래발전 제주-중국 교류주간'을 개최한다.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으며, '제주-중국, 협력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제주와 중국의 경제·문화관광 교류를 위한 제주해녀 사진전과 제주-칭다오 물류항로 홍보부스,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1995년 중국 하이난성과 교류를 시작했다. 이상민기자



울긋불긋 자태 뽐내는 국화 2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분수광장에서 국화전시축제가 열린 가운데 행인들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린 국화들을 감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